

앙골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앙골라 (Republic of Angola)

I. 일반개황

면적	1,247천 km ²	G D P	832억 달러 (2009년)
인구	18.5백만 명 (2009년)	1 인 당 G D P	4,500 달러 (2009년)
정치체제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Kwanza (Kz)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 (달러당)	79.33 (2009년)

-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앙골라는 한반도의 5.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과 18.5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DR콩고, 콩고, 잠비아, 나미비아와 접경하고 있음.
- 석유산업이 GDP의 60%, 재정수입의 75%, 총 수출의 95%를 차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인프라 미비와 인적 자원 부재로 인해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집권당인 인민해방운동(MPLA)이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2년 9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제성장률	18.6	21.1	13.4	-0.9	5.9
재정수지 / GDP	14.8	11.5	8.9	-5.3	3.5
소비자물가상승률	13.3	12.2	12.5	13.7	13.9

자료 : IMF 및 EIU

□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세 지속, 그러나 2009년 마이너스 성장

- 2006 ~ 08년 앙골라 경제는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신규 유전개발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18%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석유산업이 GDP의 60%를 차지).
- 그러나 2009년에는 OPEC의 감산결정에 따라 원유 일산량이 180만 배럴로 감소하고, 국제유가 또한 하락하여 원유 수입(收入)이 크게 축소되면서 0.9%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10년에는 원유 생산량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5%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일산량 : 191만 배럴(2008) → 180만 배럴(2009) → 184만 배럴(2010) → 195만 배럴(2011)

□ 2010년 재정수지 흑자전환 전망

- 재정수지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원유 수입(收入) 증가 등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기조를 유지하여 왔음(석유부문이 재정수입의 75%를 차지).

- 2009년에는 원유 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세의 타격을 받아 재정 수지가 적자전환 된 것으로 추정되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GDP 대비 3% 중반대의 흑자전환이 전망됨.

□ 두 자릿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속

- 소비자물가는 앙골라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화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일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 향후에도 식료품 가격 상승, 디젤 및 휘발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12~13% 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정책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석유부문이 GDP의 60%, 정부 재정수입의 75%, 총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락이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 27년에 걸친 오랜 내전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음. 내전 종료 이후 전후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의 80%가 파괴되어 있고, 철도운행 또한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전력 송전도 수도인 루안다 (Luanda) 등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 국민 대다수가 절대빈곤 상태, 인적자원 부재

- 고유가로 인해 유입되는 막대한 오일머니는 일부 엘리트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부의 편중으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빈곤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앙골라 국민의 약 70%가 하루 2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오랜 내전으로 인한 교육 인프라 미비로 인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성장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총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은 내전 종식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유전개발 및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음. 2009년에는 일산량이 180만 배럴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원유생산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앙골라는 원유 확인매장량 기준 135억 배럴을 보유하여 세계 15위, 아프리카 3위의 산유국임.
- 다이아몬드는 원유에 이은 앙골라의 제2의 수출 품목으로,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경우 2008년 기준 연간 810만 캐럿의 생산량을 기록(세계 4위, 아프리카 2위)한 것으로 추정됨.
- 앙골라는 원유, 다이아몬드 이외에도 천연가스, 철광석 등도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2012년 생산을 목표로 대규모 액화천연가스 공장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생산 및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어서 앙골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정책성과]

□ 정부 재정운용의 투명성 미흡하나 개선 기대

-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는 앙골라 정부의 불투명한 재정운용을 취약점으로 지적하며, 구조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음. 이에 따라, 현재 앙골라 정부의 구조개혁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그러나 IMF의 대기성 차관 제공을 계기로 보고·감사기능이 강화되면서 재정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IMF, 14억 달러 대기성 차관 승인

- IMF는 2009년 11월 앙골라의 거시경제 안정과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완화*를 위해 앙골라에 14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 SBA)을 승인하였음.
- * 석유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앙골라는 2009년 원유가격 하락으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재정·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세계경제침체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음.
- IMF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앙골라 정부의 정책이행정도 심사를 통해 8.8억 달러에 대한 지출승인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대기성 차관 프로그램은 앙골라의 구조개혁과 거시경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연료에 대한 정부보조금 축소정책 시행

- IMF와 World Bank는 그 동안 앙골라 정부에 정부보조금을 축소하고 이를 빈곤감축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앙골라 정부는 금년 9월부터 디젤 및 휘발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 이러한 보조금 축소 정책은 연간 44억 달러의 정부지출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 축소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50%, 디젤 가격은 38% 각각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앙골라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한 자릿수 진입은 당분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10,690	10,194	6,408	-1,668	1,972
경 상 수 지 / G D P	23.7	17.2	7.5	-2.0	2.3
상 품 수 지	23,085	30,735	42,932	24,344	33,228
수 출	31,862	44,396	63,914	40,080	51,325
수 입	8,778	13,662	20,982	15,737	18,097
외 환 보 유 액	8,599	11,197	17,869	13,644	16,894
총 외 채 잔 액	9,470	11,516	15,130	16,052	17,956
총 외 채 잔 액 / GDP	21.0	19.4	17.8	19.3	20.8
D . S . R .	13.2	9.8	7.6	9.5	8.4

자료 : IMF 및 EIU

□ 경상수지 흑자기조, 그러나 2009년 적자전환

- 상품수지는 고유가에 기인한 원유수출 확대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지속하여 왔음.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05년 158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 429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확대되었음.

- 경상수지 또한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폭을 유지하여 왔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원유 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수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전환 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2010년에는 원유 생산량 증가와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이 전망됨.
 - 상품수지 : 429억 달러(2008) → 243억 달러(2009) → 332억 달러(2010)
 - 소득수지 : -145억 달러(2008) → -100억 달러(2009) → -121억 달러(2010)
 - 서비스수지 : -218억 달러(2008) → -158억 달러(2009) → -191억 달러(2010)
 - 경상이전수지 : -210백만 달러(2008) → -164백만 달러(2009) → -66백만 달러(2010)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규모 양호, 점진적 외채상황 개선

- 외환보유액은 그 동안의 원유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8년 말에는 전년 대비 60%나 증가한 17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국제유가의 회복세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황도 앙골라 정부의 개선 노력에 힘입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앙골라 정부는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을 바탕으로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에 총 23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하였음. 이 같은 정부의 외채구조 개선 노력과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2005년 38.6%에 달하던 GDP 대비 외채비중은 현재 20%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DSR도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산토스 (Santos) 대통령의 안정적인 집권 지속

- 2008년 9월, 16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인 인민해방운동 (Movimento Popular de Libertacao de Angola: MPLA)이 압승하였으며, 2012년 9월에 예정된 총선까지 산토스 대통령의 안정적인 집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2월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폐지되고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됨.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인민해방운동(220석 중 191석 차지)의 당수로 재 선출된 산토스 대통령이 차기 총선까지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음.

□ 미국, 포르투갈, 브라질 및 주변국과 양호한 관계 유지

- 미국과는 원유 공급을 매개로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브라질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앙골라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 지도력을 바탕으로 기니만 연해 접경 국가들에게 군사적 영향력(군사교육, 경찰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중서부 아프리카의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그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남아공과도 2005년 2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외 군사협력 강화 및 전기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도 체결하였음. 또한 산토스 대통령과 남아공 주마 (Jacob Zuma) 대통령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

- 2003년 중국이 앙골라에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 및 크레딧 라인(credit line)을 설정한 이래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최근에는 앙골라가 중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기업(건설, 상업, 전력, 광산업 등)의 대 앙골라 진출 또한 활발함.

2. 사회 및 소요사태

□ 내전 종료로 사회는 안정 추세

-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래, 식민지 시절 무장 독립 단체였던 앙골라 인민해방운동(MPLA)과 앙골라 독립민족동맹(UNITA)이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27년에 걸쳐 내전을 벌여왔으며, 2002년 2월 반군 지도자 사빔비(Savimbi)의 사망을 계기로 내전이 종결되면서 정치적 안정을 회복해 왔음.
- 그러나 내전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귀국한 난민 110여만 명과 국내 내전으로 발생한 이재민 300만 여명에 대한 안정 대책 마련이 해결과제로 남아있음.

□ 연료 보조금 축소에 따른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 존재

- 앙골라 정부의 디젤 및 휘발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정책으로 연료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모잠비크*와 같은 소요사태 발생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0년 9월 모잠비크에서는 모잠비크 정부의 연료 보조금 축소 정책에 반발한 유혈사태 발생으로 7명이 사망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6등급 (2009. 10) → 6등급 (2010. 10)
- S&P : B+ (2010. 5)
- Moody's : B1 (2010. 5)
- Fitch : B+ (2010. 5)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중·단기 제한적 인수가능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

- 고유가에 기인한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을 바탕으로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에 총 23억 달러(1989-2006년 사이 발생한 채무 연체)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외채구조 개선에 주력해오고 있음.

□ 국내부채 연체액 증가, 그러나 2011년 1/4분기까지 전액 상환예정

- 앙골라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86억 달러 규모의 국내부채(Domestic Debt)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연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V. 종합의견

-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인 앙골라는 GDP의 60%를 차지하는 석유 부문의 견실한 성장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여 왔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 원유생산량 감소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입(收入)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제반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2010년부터는 석유산업의 회복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성장이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금년 연료에 대한 정부보조금 축소 정책 시행으로 인해 당분간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1979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산토스(Santos) 대통령의 굳건한 기반 아래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책임조사역 박대원(☎02-3779-6651)
E-mail : parkdw@koreaexim.go.kr